

건물에 구멍 '승승' 왜 한빛원전만...불안감 확대

격납건물 공극 총278개...전국 원전의 94% 차지
현대건설 시공...“심각한 부실공사 이제 드러나”

영광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이 무려 278개에 달하면서 그 원인과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빛 3호기 124개 · 4호기 121개 집중 발생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받은 원전 격납건물 공극발생 현황 자료를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격납건물 공극이 295개에 달했다.

격납건물은 원자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벽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원전 8곳에서 245개 공극이 발견됐다. 하지만 최근 조사를 통해 50개의 공극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가운데 94%가 영광 한빛원전에서 발견됐다. 한빛원전은 1호기 14개, 2호기 18개, 3호기 124개, 4호기 121개, 6호기 1개 등 총 278개의 공극이 발견됐다.

◇공극 발생 원인은 콘크리트 다짐 불량

이처럼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의 격납건물에서 다수의 공극

이 발견된 것은 시공 당시 부실공사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극 발생 원인이 건설 당시 콘크리트 다짐 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깊이 157cm의 대형 공극이 발견된 한빛원전 4호기는 대표적인 부실공사 사례로 꼽힌다.

대형 공극이 발견된 부분의 콘크리트 벽 두께가 167.6cm인 점을 감안했을 때 공극이 가장 깊은 부분은 약 10cm 정도의 두께만 남고 내부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9~1995년에 건설된 4호기 격납건물은 당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상업운전은 1996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23년이 지나도

록 발견되지 않았던 심각한 부실공사 흔적이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26일 현재 한빛원전 6호기 가운데 1호기와 3호기, 4호기는 계획 예방정비가 진행되면서 가동을 멈춘 상황이다.

◇원전 불안감 확대...시민단체 “원전 폐쇄”

수백개 대형 공극이 확인되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당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전 폐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168cm 두께의 벽에서 깊이 157cm의 구멍이 발견됐는데 과연 이것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안전의 초전선에 있어도 부족한 핵발전 시설



이 단순 그물수준을 넘어 찢어진 그물과 다를 바가 없이 구멍이 승승 뚫린 건물”이라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4호기 재정비를 멈추고 당장 폐쇄해야 한다”며 “폐쇄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빛원자력본부 측은 공극에 대한 구조물 건전성평가와 완벽한 정비를 통해 원전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진행사항과 정비결과를 지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원전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박응섭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많은 공극이 원전의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구조물 건전성평가와 완벽한 정비 등을 통해 원전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영평=서희연 기자

제2회 광산구 청년일자기 페스티벌

2019.9.26(목) ~ 27(금) / 2일간
호남대학교 잔디구장 / 기업 탐방

이벤트 존

- VR면접체험 _ 가상면접 체험
- 취업타로 _ 직업운, 타로상담
- 이력서사칭행영
- 이미지메이킹 _ 면접헤어 및 메이크업 코치

www.2019jobfestival.com

관련 1. 취업컨설팅
인기유투버와의 만남
일시_ 2019. 9. 26. 12:30~13:00
장소_ 메인무대
-강사 프로그림, 이나리TV 유투버(구독자 5만명) 프라임서 아나운서

관련 2. 취업컨설팅
미디어 크리에이터 창업에 대하여
일시_ 2019. 9. 26. 13:00~14:00
장소_ 상하관 1층 강당
-강사 프로그림, 유투브채널 '별로우키' 운영 유투브 및 바이얼 컨텐츠 영상 2,000명 이상 제작

관련 3. 취업컨설팅
지역을 변화시키는 '로컬창업'
일시_ 2019. 9. 26. 14:00~15:00
장소_ 상하관 1층 강당
-강사 프로그림, 비로컬 주식회사 대표 로컬 코워킹 스페이스 DAR 운영

관련 4. 취업컨설팅
경험이라는 나만의 무기 만들기
일시_ 2019. 9. 26. 15:00~16:00
장소_ 상하관 1층 강당
-강사 프로그림, (주)동네대인 대표이사 (사)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2019)

강사 - 유튜버 이나리 (이수혜)

강사 - 유튜버 우키 (박옥희)

강사 - 김혁주

강사 - 김태진

광주·전남 4년간 '촉법소년' 1631명

13세 비중 64% 압도적 · 4대 강력범죄 77%...“대책 마련 절실”



평균 7006명, 하루 평균 약 20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8220명 △서울 5912명 △인천 1986명 △부산 1456명 △대구 1326명 순으로 많았고 △제주 441명 △울산 684명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 처벌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015~2018년 광주와 전남에서 촉법소년 1631명이 소년부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 동안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광주 815명, 전남 816명이다.

연평균 204명 꼴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5년 227명이던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2016년 137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7년 205명, 2018년 246명으로 증가했다.

전남은 △2015년 181명 △2016년 225명 △2017년 198명 △2018년 212명으로 200명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전국적으로는 4년간 촉법소년 2만8024

△강원 758명 순으로 적었다. 연령별로는 13세가 1만7945명(64.0%)로 압도적이었고, △12세 5932명(21.2%) △11세 2642명(9.4%) △10세 1505명(5.4%)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1만298명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 등 4대 강력범죄가 2만191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송치된 촉법소년도 1495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떤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바탕으로 차질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1

진도에 '가족센터' 건립...공모 선정, 국비 15억 확보

30억 들어 2021년 완공 예정

진도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인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족센터는 기존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기능 공간이다.

센터 내에는 △가족 소통공간 △놀이 소

통공간 △다목적 교류공간 △교육·상담과 돌봄공간 △가족상담실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된 가족센터는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을 포함 총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1년에 최종 마무리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가족센터가 지역 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주민 밀착형 소통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